



김성영 윤선경(유건 유현) 선교사 기도편지 (108번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 24:42~3)



까람! 포콧에서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KESHA(케샤)! 스와힐리어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과 자연 재해, 그리고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곳 포콧 역시 올해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것이 회색으로 메말라 버렸고, 가축들마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포콧의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품고 포콧의 이웃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포콧은 매일매일 더 덥고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강 바닥을 파서 겨우 물을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3주 전에 촬영한 것인데, 어제 교회를 다녀오며 보니 이마저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완전히 메마르다 보니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케냐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옥수수 농사가 대망가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소의 우유량이 줄어 케냐 우유 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포콧에서도 염소 젖이 구하기 힘들니 우유 없는 블랙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뿐만 아니라 콩과 수수 가격도 너무 올라 걱정이 큼니다.

케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부터 엘리뇨로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메마른 땅에 시원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원에 새가족이 왔어요.



최근 저희 동네 콜로와에 술에 취한 남편이 우갈리(옥수수로 만드는 떡, 주식)를 만드는 주격으로 아내를 때려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현재 도망쳐서 수배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방문하자고 칩(Chief, 동장)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5명의 아이들이 남겨진 집이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아들이고, 막내만 어린 딸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15살 정도 된 큰오빠가 막일을 해서 식량을 구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는 날에는 아이들은 이웃집을 다니며 구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아원의 정원 80명이 이미 다 차 있었지만, 오빠들이 어린 막내 여동생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고아원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옥수수 15kg과 야채를 살 돈을 좀 주었고, 매달 영유아결연 프로그램으로 도와 줄 예정입니다.

넷째아이는 9살쯤 되었을까요...

케냐의 날카로운 낫 같은 도구(팡가)로 땀감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아원에 새로 온 아이의 이름은 체에치이고 8살정도 된것 같습니다.

체에치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벌써 숫자도 쓸 줄 압니다.

고아원이 참 좋다고 말하는 체에치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5cm~180cm, 10kg~66kg

고아원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6개월만에 다시 측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 모두 부쩍 키가 컸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가장 어린 체포흔은 95cm에 10kg이고, 중 3인 예고도 많이 자라 키가 벌써 키가 180cm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도 동역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아원 사역 이모 저모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새로운 노래와 활동을 찾는 것이 점점 더 고민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작은 활동에도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미있어 해주니 참 다행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에게 양말 신겨주는 놀이부터 단체 홀라후프 통과하기, 몸으로 말해요 게임,
형들이 만든 다리 빨리 건너기, 눈치 게임 등을 하며 신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아원 - 키토콘과 룡기로이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키토콘이 갑자기 열이 반복해서 나고 심장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말라리아인가 싶어 콜로와에서 검사를 했지만 말라리아로 인한 열이 아니었습니다. 수술한 텐웁 병원에 전화를 하니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큰일이 날까 염려되어 다음 날 새벽 일찍 출발해 400km를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7시간동안 빠르게 달려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밤 9시까지 병원에서 여러가지 많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심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좀 가까이에 있으면 좋으련만, 응급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으니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고, 보험이 적용 안되는 많은 병원비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키토콘과 고아원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고아원의 초등학교 1학년 룡기로이는 동그란 쇠구슬을 귀에 넣어 아프다고 왔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주사기에 정수된 미지근한 물을 넣어 쓱~ 쏘아서 잘 빼낼 수 있었습니다^^



수리 보수 사역



콜로와 지역행정관(D.O)이 집수리를 요청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저희만 철을 용접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용접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점차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교회 리모델링과 고아원 교실 건축 및 운동장 그늘막, 철봉 공사

포콧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짓고 여러 공사를 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곳에서 고아원과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김홍정 선교사님 부부가 한 권사님의 후원과 자비로 한국에서 포콧을 방문하시게 되었고, 덕분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지붕골격을 만들었는데, 흰개미가 교회의 나무기둥을 파먹고 있어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기루루 교회를 철골구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교회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작업이 10월 중순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기루루 교회



나무를 갉아 먹는 흰개미

건축선교사님과 일군아저씨들이 콜로와에 머무르는 동안, 고아원에 꼭 필요한 공사들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와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고아원에는 영아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81명의 아이들의 11개의 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러나 방과 후 수업이나 방학 중에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 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로 지으면 좋겠지만, 수업 할 때만 사용할 예정이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양철로 지으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 뛰노는 운동장과 타이어 모래놀이터에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철골 구조를 세워 양철지붕을 씌워주면, 아이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잘 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아원 곳곳에 벽돌 시멘트 벤치와 철봉도 함께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공사를 진행 하는데 약 500~6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공사비용이 채워져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동장 모래 놀이터



저희 가정은요

유건이와 유현이는 새학기를 잘 시작했습니다.
유건이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유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고 놀랍기만 합니다.

저희 부부는 건조한 날씨와 모래바람 때문에 기침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잔기침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다가도,
고아원아이들과 여러 사역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윤선교사는 중독상담수업 2학기가 시작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 한 교수님께서 “아이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방임이나 학대, 사랑의
결핍이라는 심각한 역경을 겪었더라도, 성장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어른(멘토)이나 또래관계를 만나면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회복탄력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저희 부부와 직원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 * 매일 저녁 예배 때 포켓어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 * 현재 81명(남자 42명, 여자 39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2. 포켓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 * 포켓교회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 * 코로나19 이후로 요즘이 가장 물가가 비싸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특히 영유아결연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23가정의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다가오는 사역을 위해

- * 10월 중순부터 시작 될 교회 리모델링과 고아원 공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 10월 16일부터 고아원 아이들이 약 3개월동안 긴 방학을 합니다. 방학 중 4주는 가디언집에서
보내고 나머지 2달을 고아원에서 함께 지냅니다. 이번 방학동안 BIG&LITTLE프로그램, 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매일 학년별수업, 달란트잔치, 성탄절드라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매년 마다 12월에 성탄절 옥수수나눔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옥수수 나눔을 통해 각 마을마다 복음을 잘 전해지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포켓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렛 요우~